

# 大巡眞理의 目的에 관한 研究(I)

- 無自欺 · 精神開闢을 中心으로 -

金錫罕\*

目次	
I. 序論	2. 大巡眞理의 無自欺
II. 大巡眞理 目的의 根據	IV. 大巡眞理의 目的- 精神開闢
1. 九天上帝에 대한 信仰	1. 精神開闢의 意味
2. 信仰方法으로서의 修道	2. 天道教와 圓佛敎의 精神開闢
III. 大巡眞理의 目的- 無自欺	3. 大巡眞理의 精神開闢
1. 儒敎의 無自欺	V. 結論

## I. 序論

종교는 사회 안에서 과학이나 학문이 해결하지 못하는 고유한 영역을 갖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초월적인 관계를 통해 어떠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 종교마다 종교적 인간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미래에 대해 나름대로의 세계를 제시하고 있다. 불교의 극락정토나 유교의 대동세계, 기독교의 천국 등이 이러한 것이다.

종교적 세계관에서는 이상세계와 현실세계의 두 가지 관념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종교인은 항상 마음속에 장차 도달하게 될 이상세계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그 이상세계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즉 이상세계와 지상의 현실세계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먼저 이상세계를 현실세계로부터 분리하려는 사고 방식이 있다.

\*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이것은 이상세계를 저 세상이나 다른 세계와 같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찾는다. 이것이 죽음의 문제와 결부되면 사후의 세계가 대망의 이상세계로 보이게 된다. 전통적인 극락정토나 천국사상이 이에 속한다. 또 이상세계를 현실 세계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고 방식이 있다. 이는 현실세계를 구체적인 이상세계로 개조하려는 것과 현실을 종교적으로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가치관에 의해서 이상세계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 있다.<sup>1)</sup>

대순진리에서도 이상세계라는 정확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도통진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집약된다. 이는 사후의 세계도 아니고 현실에서의 신세계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도통진경은 도통이란 개인의 목적과 진경이란 사회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한 그러한 개념이며 특히, 역사적으로 수행을 중시했던 사람들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하였다. 대순진리가 현실에서의 이상세계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구천상제의 강세와 그에 따른 천지공사 즉 개벽공사에서 찾을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대순진리의 목적인 도통진경의 세부 조목이라고 할 수 있는 무자기 정신개벽을 중심으로 그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래서 먼저 대순진리의 목적의 근거가 되는 상제에 대한 신앙과 신앙방법으로써의 수도를 알아보고, 이어 무자기와 정신개벽을 각각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무자기는 동양의 수양의 방법으로 중시되었기 때문에 유교에서의 무자기를 알아보고 대순진리에서의 무자기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정신개벽의 의미와 천도교, 원불교에서 주창한 정신개벽을 파악하고 대순진리의 정신개벽의 의미와 내용을 고찰해보려고 한다.

## Ⅱ. 大巡眞理 目的의 根據

### 1. 九天上帝에 대한 信仰

대순진리는 최고신인 九天上帝가 세계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여 신성 불보살들의 하소연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으로 직접 내려와 천지공사라는 대역사를 통하여 후천선경을 이룬다고 하는 신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

1) 기시모토히데오, 박인재 옮김, 『종교학』, 김영사, 1994, 118-119쪽

상제강세의 배경이 된 선천세계는 인간과 사물이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이 맺혀 참혹하게 되었으며, 물질문명에 의한 인류의 교만으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긋난 진멸지경에 처한 상황이었다.<sup>2)</sup>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긋남은 제자가 선생을 해하고 신하가 임금을 주살하는 하극상의 일이 벌어지게 되어 忠 孝 烈이 무도한 ‘天下皆病’으로 나타났고, 근세에 이르러서 자연을 개발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물질문명의 토대를 만들어 버렸다. 과학문명의 등장은 인간의 이기에 큰 도움으로 작용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인류의 자만과 방종으로 이어져 자연을 파괴하고 끊임없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간정신의 타락과 윤리도덕의 몰락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가 자리잡고 있다. 결국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상도가 어겨져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되어 인간 스스로 자멸의 위기마저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세계의 위기는 마침내 최고신 상제의 강세로 이어지게 되고 天地公事라는 전대미문의 대역사를 단행하게 된다.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노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sup>3)</sup>

천지공사는 천지를 바로 잡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니, 곧 전 우주를 개혁하는 공사이다. 선천세계의 그릇되고 불합리한 모든 이치와 질서를 뜯어고치고 바로 잡아 새로운 이법과 원리로서 천지를 성숙케 하고 완성시키는 종교적 행위이다.<sup>4)</sup>

결국 천지공사는 선천의 현실을 구하기 위한 구제의 역사이며, 인류에게

2) 대순진리회 교무부, 『典經』 공사 1장 3절, 대순진리회 출판부, 1974

3) 『典經』 공사 1장 3절

4) 상제의 공사에 참석한 사람은 모두 전체 인류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역할하며, 그 결과 천지공사의 내용도 다분히 상징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그 상징성은 나아가 구천상제에 대한 신앙에 입각하여 권위있는 예언성을 지니기도 하며, 오늘날 하나의 종교적 실천 속에서 현실화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하겠다.(최동희 이경원, 『대순진리의 신앙과 목적』, 대순사상학술원, 2000, 64쪽)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가져다 주기 위한 설계의 역사이기도 하다. 천지공사로 이루어진 미래의 모습이 바로 후천세계이다. 이러한 천지공사로 인해 인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다가올 이상적 세계가 현실화되는 초석이 되었다.

1909년 공사를 마치신 상제께서는 종도들에게 개벽공사를 확증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두라 하고 화천하게 된다.<sup>5)</sup> 상제의 화천은 인류에게 ‘道通’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적 경지를 전수하고 있다. 이는 상제를 신앙한 결과로서 얻게 되는 구원의 경지이면서 하나의 종교적 목적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도통이란 단순하게 초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 종교적 바램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도통은 천지공사의 확정 에 따라 만인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경지이며, 구천상제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상제의 권능에 기대하는 궁극적 목적이라 하겠다.<sup>6)</sup> 하지만 이 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고 하였듯이 개개인이 스스로의 수행을 거친 후에 야만 받게 되는 최종적 결과이다. 이를 위해서 “도통줄을 대 두목에게 보내리라”<sup>7)</sup>라고 언급한 것처럼 宗統의 계승자로 하여금 그 방법을 전수하게 하였다.

人身으로 강세한 강증산을 구천상제에 대한 신앙으로 확립한 것은 趙鼎山 (1895-1958) 道主이다. 도주께서는 종통을 계승하고 신앙체계를 확립하여 대순신앙의 골격을 세웠던 것이다. 1909년 4월 天命을 받고 1917년 9년의 공부 끝에 상제의 대순하신 진리를 감오하게 되어 宗統繼承의 계시를 받게 되었다. 이 후 중국 땅으로 망명한 지 9년만에 귀국하여 상제의 계시에 따라 전국 각 지역을 편력 수도하면서 종교활동의 기반을 닦았고, 갖가지 공사를 보는 등 종교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한 구체적 실현이 바로 종단 창설로 이어진다. 1925년 전북 구태인 도창현에 도장을 건설하고 無極道를 창도하여 신앙의 대상과 교리체계 및 제 규정을 확립하였다. 이로써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는 도주께서 집약한 교리체계에 압축되어 졌다.<sup>8)</sup>

5) 『典經』 공사 3장 38절

6) 최동희 이경원, 앞의 책, 82쪽

7) 『典經』 교운 1장 41절

8) 『典經』 교운 2장 참조. 대순진리의 교리체계는, 宗旨는 陰陽合德 神人調化 解冤相生 道通眞境이고, 信條는 四綱領인 安心·安身·敬天·修道와 三要諦인 誠·

이 후 도주께서는 직접 유명으로 朴牛堂 都典에게 종통을 전수시켰고, 도전께서는 1969년 서울에서 大巡眞理會를 창설하여 새로운 종교활동을 하게 된다.

대순신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신앙하는 사람의 종교적 수행이 요청된다. 이는 대순신앙에 입각한 수도이며, 이 구체적 실천방안에 따른 수도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관건이 된다.

## 2. 信仰方法으로서의 修道

신앙방법으로서의 수도에는 구체적으로 두가지 실천행위가 필요하다. 즉 向內的인 것으로 ‘一心’을 유지하는 것과 向外的인 것으로서 ‘布德’을 행하는 것이다. 먼저 일심의 중요성과 그 공효에 대해 典經은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 마음만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던지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한 것이로다. 안 되리라는 생각을 품지 말라.<sup>9)</sup>

여기서 말하는 일심은 신앙의 대상인 상제의 존재와 천지공사를 믿는 종교적 심정을 가리키며, 그것으로부터 수도가 출발함을 말한다. 전경의 기록을 보면 일심이란 개념말고도 誠心, 正心, 眞心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것은 일상용어로서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상제께서는 공사를 행하거나 어느 곳에 머무를 때에 반드시 정심을 하게 하였고 혹시 방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지적하였다.<sup>10)</sup> 왜냐하면 공적인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잠시라도 방심을 하면 그 일 잘못되어 그 영향이 직접 인세에 미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sup>11)</sup>

敬·信이며, 目的은 無自欺 精神開關 地上神仙實現 人間改造 地上天國建設 世界開關이다.

9) 『典經』 교법 2장 5절

10) 『典經』 교법 3장 8절, 권지 2장 22절

11) 『典經』 공사 1장 33절 박공우가 마음으로 천문지리를 찾아보라는 명을 어기고 속으로 풍운조화를 생각하였는데 그 날밤 갑자기 눈이 내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너의 한 번 그릇된 생각으로써 천기가 한결 같지 못하다”고 책망하였다.

대다수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박한 종교적 심정을 담고 있는 마음의 자세에 대한 강조는 곧바로 수행의 자세로 연결되어 내면의 일정한 신앙적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내면의 자세를 가리켜서 일심이라고 한다.<sup>12)</sup>

일심의 내적 수도가 되면 구체적으로 공효가 복록<sup>13)</sup>, 운수<sup>14)</sup> 등으로 이어지며, 또한 동학에서는 도의 기운을 오래 보존하면 사심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상제께서는 한발 더 나아가 진심을 굳게 지키면 복이 먼저 온다고 하는 적극성을 말해주고 있다.<sup>15)</sup>

이 일심을 가지므로 해서 자신의 본질을 자각하고 인간 본연의 청정한 본심으로 돌아가며, 이를 통해서 달성하는 종교적 경지가 바로 운수이며 도통인 것이다. 이처럼 일심은 상제에 대한 신심을 체득하게 하여 천지공사를 실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되며 종국에 가서는 수도의 목적을 달성케 한다.

일심이 개인의 내면적 수도라면 포덕은 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통용되는 향외적 수행의 방법으로 제시된다. 천지공사의 이념적 방향성을 ‘해원상생’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는데, 포덕은 이러한 상생의 개념에 입각하여 타인을 위한 대타적 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볼 때 자신이 상대에 대한 도리를 행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을 수 있듯이 상대를 위해 덕을 베풀고 상대를 잘 되게 해 줌으로써 결국 자신도 잘 될 수 있다는 능동적 의미의 선을 지향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포덕은 일단 남을 잘 되게 하려는 의지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기의 수행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自他不二의 실천방안이기도 하다.<sup>16)</sup> 이러한 포덕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다음의 구절을 들 수 있다.

우리의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 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 천명숙이 거사할 때에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賤人)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서 잘 되어 조선 명부가 되었느니라.<sup>17)</sup>

12) 이경원, 「한국 근대 천사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8, 143쪽

13) 「典經」 교법 2장 4절

14) 「典經」 교법 2장 37절

15) 「典經」 교법 2장 3절, 道氣長存邪不入 眞心堅守福先來.

16) 이경원, 앞의 논문, 144쪽

포덕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다. 타인에게 베푸는 자신의 덕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의미에서 포덕은 자기 수행의 과정을 담고 있다. 자신이 잘 되고 못 되는 결과는 모두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덕을 베풀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포덕의 주체가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며, 타인에 대한 行善이 곧 자신의 善으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결코 利他行과 같이 타인에 대한 동정심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포덕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상제께서는 남을 잘 말하면 덕이 되어 잘 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내 몸에 이를 것이라고 주의를 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며, 오직 타인을 위하는데서만 끝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자신과 남을 '一體意識'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며, 사회적 善을 이루는 실천양식으로서의 포덕 개념을 강조한 것이다.<sup>18)</sup>

상제의 강제와 천지공사는 곧 선천의 혼란한 위기적 현실을 구제하는 '平天下'의 의미를 지닌다면 포덕의 행위는 그 가치를 실현하는 '治天下'의 과정을 담고 있다.<sup>19)</sup> 이로써 볼 때 종교적 수행으로서의 포덕행위는 그 가치가 인간을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천지공사를 마무리하고 후천세계를 건설하는 즉, 천 지 인 삼계를 완성시키는데 그 최종적 공효가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바로 布德天下, 輔國安民, 救濟蒼生이라는 종단의 목적과도 부합된다.<sup>20)</sup> 이러한 점에서 개개인의 수도가 당면한 절실한 문제이자 남겨진 과제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신앙방법으로서 수도를 일심과 포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두가지 방법은 內外, 自他的 병행과 상보되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종단에서는 이것을 '事業'이라는 개념으로 체계화하였다.<sup>21)</sup> 즉 사업이란 포덕 교화 수도의 세가지가 정립된 공부를 일컫는다. 그리고 신앙이 밀바탕 된 이 사업을 통해 '道通眞境'이라는 개인과 사회의 궁극적 목적

17) 「典經」 교법 1장 2절

18) 최동희 이경원, 앞의 책, 86쪽

19) 「典經」행록 3장 31절

20)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대순진리회 출판부, 1969, 14쪽

21) 「要覽」, 22쪽

이자 이상이 달성된다고 하겠다.

대순진리의 목적은 도통진경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바로 교리 내에 목적으로 명기되어 있으니 무자기 정신개벽 등이다.

### Ⅲ. 大巡眞理의 目的- 無自欺

#### 1. 儒敎의 無自欺

무자기가 경전에 처음으로 언급된 곳은 大學<sup>22)</sup>이다. 經 1장과 傳 10장으로 구성된 대학은 유교의 사서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중요한 전적이다. 대학의 經에는 明明德, 親民, 止於至善을 三綱領으로 하고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를 八條目으로 하는 등 논리정연한 체계가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유학의 이념과 그 이념의 실현을 위한 절차와 단계를 규정한 것이다. 明德은 修己에 해당하고 親民은 治人에 해당하고 止於至善은 이 修己治人이 완전하게 발현된 세계이며, 이를 위해 팔조목이 필요하게 된다. 이 팔조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다. 대학에는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는 말을 해석한 것이 가장 많다.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은 실제로 대학의 정연한 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sup>23)</sup>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 그 뜻을 성실히 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임이 없는 것이다. 마치 나쁜 냄새를 싫어하고 좋은 색깔을 좋아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을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홀로 있음을 삼가하여 조심하며 소인은 한가로이 거처함에 선하지 않은 행동을 하여 이르지 못하는 바가 없다가, 군자를 보고 나서 께연쩍게 그 不善함을 가리우고 그 善함만을 드러내니, 남들이 자기를 보는 것이 폐와 간을 보듯이 하니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이것은 마음을 성실하게 하면 외면으로 나타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혼자 있을 때에 삼가하는 것이다. 曾子는 “열 눈이 보는 바이며, 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바이니,

22) 전경의 기록을 보면 상제께서도 대학을 중시한 점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구절은 교운 1장 56절, 57절, 권지 1장 15절, 제생 14절 등이 있고, 특히 종도들의 지혜를 깊게 하기 위해 대학우경 입장을 많이 읽으면 대운이 있다고(교운 1장 55절) 하거나, 또 활연판통한다고(교법 2장 26절)도 하였다.

23) 張岱年, 김백희 옮김, 『中國哲學大綱』(下), 까치, 1998, 667쪽



그 무섭구나”라고 말하였다.<sup>24)</sup>

위 내용에서처럼 誠意의 구체적 실천방법이 無自欺이다. 그 뜻을 성실히 한다는 것은 바로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이니 홀로 있을 때에도 열 개의 눈과 손이 보고 가리키듯 삼가하고 조심하라는 것이다. 大學에서 말한 誠은 스스로 속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중요시된 것이다. 스스로 속이지 않으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 선함을 좋아하는 것을 좋은 색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하며, 선하지 않음을 미워하는 것을 나쁜 냄새를 싫어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 바로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다.

유교에서의 좋은 天賦의 本然이고 惡은 人欲이 드러남이다. 여기의 誠意도 맹자가 말한 性善說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바, 인간의 본성은 선함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自己이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한 자기’, ‘본연의 자아’를 속이지 않은 것이다. 선을 따르고 악을 버린다는 것이 곧 뜻을 성실히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내면으로부터 성실함을 추구하게 된다.

무자기는 성의의 방법이므로 誠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무자기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誠을 정이천과 주희의 설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誠과 敬의 의미관계에서 주자는 ‘속이고 거짓됨이 없음’과 ‘방자함이 없음’으로 각각의 특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주자는 말하기를, “誠은 不欺妄을 뜻하는 것이요 敬은 不放肆를 뜻하는 것이다”<sup>25)</sup>라고 하였다. 보다 적극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성의 불기망은 ‘眞實無妄’을 말함이고 경의 불방사는 ‘謹慎戒懼’를 말함이다. 망녕되고 거짓되면 誠의 實이 될 수 없고 게으르고 방자하면 敬畏할 수 없다는 말이다.

誠은 흔히 眞實無妄이라고 한다. 정이천을 말하기를, “無妄을 일러 誠이라고 하고 不欺는 그 다음이다”<sup>26)</sup>라 하였다. 즉, 그는 성을 무망이라고 해석하였고, 주자는 무망이라는 소극적 표현에다 적극적인 표현인 진실을 부가한 것이다. 무망과 불기와와의 관계설명을 통해서 誠의 개념을 더 명백히 할 수 있

24) 『大學』 6장,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 如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自謙 故君子必慎獨也… 曾子曰十目所視 十手所指 其嚴乎….

25) 『性理大全』 권37, 性理9, 誠, 誠是不欺妄底意思 敬是不放肆底意思.

26) 『二程全書』 遺書 권6, 無妄之謂誠 不欺其次矣.

다. 위의 이천의 말한 뜻을 물음에 대하여 주자는 답하기를, 무망한 까닭에 능히 성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망이 곧 성이다. 무망은 사방팔방 어디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불기는 두개의 사물에 상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sup>27)</sup> 즉 무망을 무망함으로써 성해진다는 과정적 의미가 아니라 무망이 곧 성이어서 보편적인 것이라면, 불기는 사물간의 상대적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특수적이라는 것이다.<sup>28)</sup>

그래서 이 양자의 관계를 天道와 人道로 설명하기도 한다. 주자는 “무망은 자연지성이고 불기는 힘써하는 것이다”<sup>29)</sup>라고 하여, 無妄은 誠 그 자체인 自然之誠이지만 不欺는 人爲의 誠이기 때문에 전자는 天道로서의 誠이지만 후자는 人之道로서의 誠之요 思誠이라고 한 것이다. 주자의 문인 황간도 “無妄은 誠이요 天道이고, 不欺는 誠之이고 人道이다”<sup>30)</sup>고 하였다. 무망은 완전한 誠이라면 불기는 아직 완전한 誠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誠이라고 본 것이다.

誠의 공효라고 할 때의 誠은 인도적 誠을 의미하는 것으로 中庸의 誠之, 大學의 誠意 등의 수양적 誠이다. 주자는 誠의 의미를 實理, 實有此理, 實其心 등 세가지로 보았다. 성인의 근본이라는 誠은 천리의 실리를 뜻하는 것이고, 聖이 곧 誠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순연한 실리이고 이 양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후자는 인욕의 私로 인해서 그 덕이 實하지 못할 수 있다. 천리로서의 실리와 인성으로서의 실리를 실질적으로 합일시키기 위해서 인간은 자기의 심을 실하게 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한다(不自欺). 이 심을 실하게 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誠의 뜻이 誠意 즉, 實心の 誠으로서의 誠의 功效를 말한 것이다.<sup>31)</sup>

誠의 誠之의 결과를 誠의 공효라면 誠意 誠之의 실천적 방법을 誠工夫라

27) 『性理大全』 권37, 性理9, 誠, 曰非無妄故能誠 無妄便是誠 無妄是四方八面都去得不欺猶是兩箇物事相對.

28) 金泰泳, 『退·栗 誠敬思想 研究』,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1988, 15쪽

29) 『性理大全』 上同, 問此正所謂誠者天之道 思誠者人之道否 曰然 無妄是自然之誠 不欺是著力去做底.

30) 『性理大全』 上同, 勉齊黃氏 曰無妄之謂誠 不欺其次矣 無妄便是誠者天之道 不欺便是誠之者人之道.

31) 『朱子文集』 권64, 答或人書, 誠之爲言 實也 然經傳用之 各有所指 不可一概論也… 溫公所謂誠 卽大學所謂誠其意者 指人之實其心而不自欺者言也.

할 수 있다. 정주학에서 격물치지를 窮理라 하여 매우 중요시한다. 특히, 致知와 誠意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주자는 궁리를 夢覺關에 성의를 善惡關에 배속시키고 이 두 관문을 몽각관으로 부터 들어가야 선악관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궁리는 성의에 이르는 절차요 방법이라고 한 것이다. 결국 성의의 일차적 공부는 바로 궁리라고 하고있다.<sup>32)</sup>

주자는 궁리 다음으로 중요한 성공부로 제시한 것이 慎獨이었다. 신독의 의미는 하나는 적극적 의미인데 자기만족 즉, 自慊을 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극적 의미인데 表裏를 일치시킴으로서 自欺가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다같이 隱微한 사이를 살피 뜻의 발할 때 實한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sup>33)</sup>

이처럼 무자기 혹은 불자기는 성의 또다른 의미이다. 진실무망이 곧 성이라면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다. 무자기는 양심에 의해 인식되어진 내용을 사욕으로 인해 왜곡시킴이 없이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무자기의 차이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이 아는 은밀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자기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이 무자기를 성의의 구체적 실천방법으로 제시하고 신독을 그것의 요체로 설정하였다.

## 2. 大巡眞理의 無自欺

대순진리의 목적이자 미래관은 도통진경이다. 이는 개인의 도통성취와 사회의 진경건설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세부 조목 중 하나가 무자기이다. 대순진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제의 신앙이라는 종교의 근원적인 실천의 목적이란 점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상제의 신앙의 목적이 다름 아닌 처음이자 마지막이란 것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32) 『大學』 제1장, 朱子小註, 致知誠意是學者兩箇關 致知及夢與覺之關 誠意及善與惡之關 透得致知之關則覺 不然則夢 透得誠意之關則善 不然則惡.

33) 『朱子語類』 권16, 誠意章上云 心慎其獨也 欲其自慊也 下云 必慎其獨也 防其自欺也... 以誠於中形於外 故君子必慎其獨者 欲其察於隱微之間 必吾所發之意 由中及外 表裏一也 皆以實而無小自欺也.

한다.

수도의 목적은 도통이고 이 도통은 각 개인의 수도 여하에 따라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수도는 인륜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이라고 한다. 이 수행을 해나가면 반드시 인간의 정직하고 진실한 본연의 모습을 찾게 된다. 이런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자기라는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필히 요청된다.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도통에 이른다.<sup>34)</sup>

상제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 언행과 처사가 일치되게 생활화하여 세립미진(細入微塵)되고, 마음이 무욕청정(無慾淸靜)이 되었을 때 도통진경에 이르니라.<sup>35)</sup>

인간의 마음은 일신의 주로서 모든 언어 행동은 마음의 표현이다. 그 마음에는 양심과 사심의 두가지가 있다. 양심은 천성 그대로의 본심이요, 사심은 물욕에 의하여 발동하는 욕심이다. 원래 인성의 본질은 양심인데 사심에 사로잡혀 도리에 어긋나는 언동을 감행하게 되니 사심을 버리고 양심인 천성을 되찾아야 하겠다. 인간의 모든 죄악의 근원은 바로 마음을 속이는 데서 비롯하여 일어나는 바, 인성의 본질인 정직과 진실로써 일체의 죄악을 근절해야 한다.<sup>36)</sup>

인간의 양심이자 본심이 자연 그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바로 자신을 속이지 않는데서 시작된다. 또 물욕에 의한 사심이 발동하게 되는 때에는 고요히 자신의 돌이켜 저 밑바닥에 있는 양심의 잣대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그 사심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 모습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무자기가 필요하고 그 출발점인 것이다. 특히 상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마음을 정직히 하면 가히 하늘도 두려워한다고 하였다.<sup>37)</sup>

인간 대부분은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따라서 무자기는 인

34)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38쪽

35) 「대순지침」, 39쪽

36) 「要覽」, 18쪽

37) 「典經」 교법 2장 7절

간의 본심에 근거하여 선을 실천함으로써 최적한 마음의 상태를 이루게 한다. 마음을 정직하고 진실해야 본성으로 돌아 갈 뿐만 아니라 천지공사 이후의 상황에서 인류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해야 하는 행위가 절실한 문제이다.

지난 선천 영웅시대는 죄로써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시대는 선으로써 먹고 살리니 죄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선으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써 먹고 살 도수를 짜 놓았도다.<sup>38)</sup>

지난 세계는 선악이 공존하고 악행을 저질러도 살 수 있었으나, 상제께서 후천에서 선으로만 먹고살게끔 도수로써 확정하였기 때문에 行善去惡은 선택적 차원이 아니라 당위이자 필수가 되었다.

또한 무자기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공효로 나타난다. 전경에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복이 이르나니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적의 기운이 따라들어 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sup>39)</sup>라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복은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단순한 복이 아니라 만복이라는 인류가 가장 바래고 소망하는 가장 큰 복인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도통진경 즉, 후천선경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자기를 위해서는 성실, 진실함이 필요하다. 誠은 欺心이 없는 것으로 나의 마음을 참답게 함으로써 남의 마음을 참되게 할 수 있는 것이며,<sup>40)</sup> 또한 마음이 참되지 못하면 뜻이 참되지 못하고, 뜻이 참되지 못하면 행동이 참 답지 못하고, 행동이 참되지 못하면 도통진경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sup>41)</sup> 옛부터 자신을 속이지 않고 거짓됨이 없는 진실무망이 지극하면 신과 같아진다고 하였고, 더욱 이제는 도통진경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주의할 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고(自欺自棄), 마음을 속이는 것은 신을 속이는 것(心欺神棄)이므로, 신을 속이는 것은 곧 하늘을 속임이 되는 것이 된다. 하늘을 속이는 것은 어디에도 용납될

38) 『典經』 교법 2장 55절

39) 『典經』 교법 1장 21절

40) 『대순지침』, 70쪽, 先誠吾心 以誠他心

41) 『대순지침』, 76쪽, 心不誠 意不誠 意不誠 身不誠 身不誠 道不誠

수 없는 가장 큰 죄가 된다.<sup>42)</sup>

모든 일을 있는 말로 만들면 아무리 천지가 부수려고 할지라도 부수지 못할 것이고 없는 말로 꾸미면 부서질 때 여지가 없나니라.<sup>43)</sup>

그리고 전경에 “크고 작은 일을 천지의 귀와 신이 살핀다”(大大細細 天地鬼神垂察)<sup>44)</sup>라 하였으니 암실기심(暗室欺心)을 경계하고 있다.

무자기는 자신을 속이지 않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속이는 것도 전제되어 있다. 즉 사람을 사귄 때는 마음을 통해야만 진실한 관계가 이루어지며 마음을 속이지 않는 데서 서로가 신뢰하게 되어 상호 협력 하에 주어진 일을 완수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무자기는 행선거약으로 인간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도통진경에 이르는 단초이다. 그러므로 무자기는 무엇보다도 먼저 행해야 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 IV. 大巡眞理의 目的- 精神開闢

### 1. 精神開闢의 意味

정신개벽은 정신을 개벽한다는 말로서 정신과 개벽의 합성하여 주로 한국 신종교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정신과 개벽의 각각의 의미를 파악해야 정신개벽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신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져 왔다. 먼저 동양에서 정신은 영묘한 마음, 영혼, 정령, 정기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정신 또한 정과 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과 신을 분리해서 볼 때 정이 물질적인 요소가 있다면 신은 비물질적 부분이다. 수련을 중시했던 도교에서는 비교적 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고있다.

도교는 精氣神을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있는데 인체 속에 있는 원정, 원기, 원신을 가리킨다. 즉 교감하는 정, 호흡하는 기,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려하는 신으로 보고 이 세가지 개념을 취하여 내단수련의 약

42) 「대순지침」, 42쪽

43) 「典經」 교운 1장 36절

44) 「典經」 공사 3장 40절

물을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신은 사람의 생명을 주재하며, 이것은 정에 의지하여 생기며 채워지고 길러진다, 기는 정에 의지하여 화생한다. “太平經”(聖君秘旨)에서는, 수련할 때 반드시 기를 지키고 신과 합하고, 정은 그 形을 버리지 않아서 이 셋을 하나로 할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가리키고 있다. 그 래야만 본원으로 다시 돌아가 영생에 상주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東漢의 高誘는 “회남자”의 精神訓에서 “정이란 사람의 기이고, 신이란 사람이 지키는 것이다. 그 근원을 중심으로 하여 그 뜻을 말하기 때문에 정신이라 한다”고 해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정신과 형체는 각각 다른 근원이 있다고 제기하여, 정신은 천에서 받은 것이며, 형체는 지에서 품수한 것이라고 한다. 또 정신은 형체에 대해 지배하는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여, 심은 形의 주인이 되며, 神은 심에 있는 보배로 보아 神을 기를 것을 강조했다.<sup>45)</sup>

한편, 유교에서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형체가 음이라면 정신은 양이다. 음은 수렴하는 특성을 양은 발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신 혹은 의식의 지각이나 운동은 맑은 기(淸氣)의 작용이며, 신체는 주로 濁氣로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사후에 우리의 기가 흩어질 때도 음양의 원리를 따른다. 따라서 양에 속하는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음에 속하는 백은 땅으로 내려간다. 살아 있을 때는 기가 모여서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지만 사람이 죽으면 기가 흩어지고 혼과 백이 분리되는 것이다.<sup>46)</sup> 이처럼 동양에서는 정신은 인간의 중추기간으로 마음, 영혼, 정혼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작용한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정신이란 말을 쓸 때 마음이나 혼과 확연하게 구별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정신과 마음은 흔히 영어의 spirit과 mind라고 구별한다. 전자가 인간의 경우 집단적 생명의 뜻, 즉 비교적 知的이고 意的인 다소 차원 높은 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데 비하여, 후자는 오히려 동물을 포함한 생명의 정서적 감정적 측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 그런 의미에서 정신은 인간과 인간의 여러 종류의 집단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궁극적 원리에 지나지 않는다. 근대의 해

45) 김승동 편저, 「도교사상사전」, 부산대학교출판부, 1996, 904-906쪽

46) 김수중, 「유가의 인간관」, 「인간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9, 165쪽

겔의 철학에 있어 정신은 또한 삼라만상의 생명의 원리이다. 따라서 헤겔의 정신개념 뒤에는 그리스도교의 聖靈(heiliger Geist)의 개념이 깔려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정신에 대한 의미가 모호해지고, 정신과 마음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sup>47)</sup>

이상에서 정신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어져 왔다면, 개벽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에서 독특하게 사용된 개념이다. 물론 서양의 천지창조란 말이 있긴 하지만 이는 절대자의 주재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일을 의미한다. 그래서 개벽의 자연적이고 순환적인 사고와는 대비된다.

개벽이란 천지개벽의 준말로 ‘指天地之初開’라 하여 하늘이 처음 열리고 땅이 처음 이룩됨을 의미한다. 이 말은 “史記”(三皇本記)에서 ‘自開闢至于獲麟’라고 기록돼 있고, 後漢書(應劭傳)이나 일연의 三國遺事 등에서도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는 천지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 즉 천지가 열려 사람과 만물이 처음으로 나온 때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천지의 시초나 만물의 시원성을 상징한 말이다. 그러나 개벽이란 말이 사상적으로 전개되기는 19세기 중 후반 동학과 남학사상에서 연유한다.<sup>48)</sup> 수운은 1860년 득도한 후에 후천 오만년 운도가 돌아 왔다고 역설했으며, 김일부는 중국의 주역 이론을 비판적 계승하면서 정역을 통한 후천개벽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상 정신과 개벽을 종합해보면 정신개벽이란 인간의 정신, 마음,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 탈바꿈한다는 의미이다. 비유하자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영혼이 성장하면서 나쁜 습관, 좋지 않은 기질, 잘못된 사고 사례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형체에 가려진 것을 벗어버리고 성현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 하겠다.

정신개벽은 20세기초부터 한국의 제 신종교에서 교리 내지는 이념으로 표방하는 점이 기성의 종교와 차별화 된다. 이 점은 신종교의 세계관 혹은 미래관과 연관돼서 설명되어야 충분히 본의가 파악될 것이다. 왜냐하면 신종교의 이상 목적이 개벽을 상징하고 있고 그 개벽에 맞추어 인간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개벽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개벽되지 않고는 세계의 개벽

47) 『동아대백과사전』 (24), 동아출판사, 1983, 601쪽

48) 유남상, 『정역연구』, 『한국종교』 1집, 원광대학교 출판국, 1974, 12쪽



도 요원한 것이므로 더욱 인간의 정신개혁이 중요한 문제로 각 신종교에서 자리 잡게 됐던 것이다. 이제 정신개혁을 본격적으로 주창한 천도교와 원불교에 대해서 살펴본다.

## 2. 天道敎와 圓佛敎의 精神開闢

### 1) 天道敎의 精神開闢

#### (1) 水雲의 開闢觀과 義菴의 人與物開闢說

천도교의 정신개혁을 알아보기 전에 수운에 의해 제시된 선후천론과 개혁관을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의암 손병희에 의해 본격적으로 다룬 정신개혁이 기실 수운의 개혁관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수운의 역사관은 時運의 역사감을 가지고 역에 기초한 순환사관을 바탕으로 깔면서도 개혁이란 변혁에 중점을 둔 혁명적 사상이다. 수운사상에서는 한편으로 음양오행적인 자연주의적 필연의 우주순환과정으로서 ‘무위이화’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시천주’의 신앙을 통해 도성덕립하여 모두가 군자가 되어야 한다는 윤리적 당위를 강조한다. 즉 자연적 필연으로서의 무위이화와 윤리적 자율로서의 도성덕립의 두 계열이 결국 ‘천주’를 예정조화자로 이해케 한다.<sup>49)</sup>

수운에서의 선후천 개념은 천지창조 후 특히, 천황씨 이후 수운 자신의 득도전 까지를 선천의 개념으로 그 이후 앞으로 오만년을 후천으로 잡고 있다. 그는 자신이 후천개혁의 대운을 처음으로 자각하여 그 첫 소식을 전파하고 이 새로운 운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침으로써 개혁의 선지자적 역할을 수행하였다.<sup>50)</sup>

그는 “한울님 하신 말씀 개혁후 오만년에 네가 또 침이로다. 나도 또한 개혁이후 勞而無功 하다가 너를 만나 成功하니 나도 成功 너도 得意 너의 집안 運數로다”<sup>51)</sup>라고 노래하였다. 또 “한울이 五萬年 無極大道로써 내게 말

49) 신일철, 「최수운의 역사인식」, 「최수운 연구」, 한국사상연구회, 보성사, 1978, 28-29쪽

50) 신일교, 「후천개혁사상의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81, 16쪽

51) 천도교중앙총부, 「용담유사」, 「용담가」, 천도교중앙총부 출판부, 1992

기시니 吾道는 후천 오만년의 大道니라”<sup>52)</sup>고도 하였다. 이렇게 수운은 선천 개벽이후 오만년만에 처음으로 운수 좋게도 대운을 받아 후천오만년의 무극 대도를 자신이 받게 되었다고 언표하였다.

수운과 해월이 한결같이 후천개벽운수의 도래를 주장하였음에 반해, 의암 손병희는 후천개벽을 人開關과 物開關으로 나누어 인개벽은 정신개벽이고 물개벽은 육신개벽으로 먼저 정신상 무형의 개벽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암의 ‘人與物開關說’은 해월이 “개벽운수”에서 언급한 ‘신호천 신호지에 인여물이 역신호의니라’<sup>53)</sup>고 하는데서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의암은, 개벽은 부패한 것을 맑고 새롭게 복잡한 것을 간단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며, 천지만물의 개벽은 空氣로써 하고 인생만사의 개벽은 精神으로써 인간 각자의 정신이 곧 천지의 공기라고 하여, 먼저 각자 정신을 개벽하면 만사의 개벽은 그 다음 자연적으로 일어난다고 주장였다.<sup>54)</sup>

의암은 또한 정신개벽의 방법에 대해서 “정신을 개벽코자 하면 먼저 스스로 높은 체하는 마음을 모실 侍字로 개벽하고, 스스로 높은 체하는 마음을 개벽코자 하면 먼저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정할 定字로 개벽하고,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개벽코자 하면 먼저 아득하고 망녕된 마음을 알 知字로 개벽하고, 아득하고 망녕된 마음을 개벽코자 하면 먼저 육신 관념을 性靈으로 개벽하라” 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性靈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侍定知의 마음 개벽을 역설하였다. 이렇게 정신을 개벽하고 나면 개벽된 정신의 모습은 흰눈같이 깨끗하고 맑고 청명한 하늘과 같고 높은 산봉우리 같이 고상하게 되어 길이 변치 않는 것이 된다고 보았다.<sup>55)</sup>

육신개벽에 대해서는, 육신을 지배하는 나의 정신을 잘 조정하여 나의 육신을 지배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 바로 육신개벽이요, 물개벽이다. 마음이 육신을 부려쓰는 역할을 충분히 할 때 물개벽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sup>56)</sup>

52)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천도교중앙총리원, 1933, 47쪽

53) 천도교중앙총부, 「천도교경전」, 「해월 개벽운수」, 천도교중앙총부 출판부, 1992, 163쪽

54) 「천도교경전」, 「義菴 人與物開關說」, 345-346쪽

55) 上同, 348쪽

56) 김홍철, 「원불교사상논고」,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0, 348쪽

특히 의암은 당시의 시대적 조류가 대변혁의 징조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천지운도에 따라 크게 변할 마지막 가을(선천끝)이며 하루로 따지면 석양이기 때문에 선천악운이 극에 달해 있어 크게 변동할 것이고, 이런 변동은 서양으로부터 불어온다고 하였다.<sup>57)</sup>

이러한 의암의 人與物開關說은 1900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서구문물이 밀려드는 상황 속에서 급변하는 有形(물질)의 개혁에 대처하는 길은 무형의 정신개혁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개혁설은 수운과 해월의 개혁사상을 진일보시켜 개혁의 이념을 두가지 방향으로 구체화시켰지만 개혁의 실천적 원리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 (2) 李敦化의 3大開關說

의암에 이어 이돈화는 3대개혁설을 주장하였다. 그는 수운의 개혁사상을 사회개혁의 구체적 이념으로 발전시켜 “후천은 신사회를 의미한 말이요 개혁은 문화의 개조를 의미하는 것이니 후천개혁은 신사회건설을 의미한다”고 하였다.<sup>58)</sup> 그는 신사회 건설을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精神開關 民族開關 社會開關의 삼대개혁을 통한 地上天國建設의 이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신개혁은 일종의 사상개조를 의미한 말인데 수운의 ‘수아영부하여 제인질병하라’고 한 어구에서 정신개혁의 뜻이 고양되고 있다고 밝힌다. 정신개혁은 모든 개혁의 준비행위가 된다. 왜냐하면 정신개조와 환경개조는 서로 분립해서 일어날 수 없으며 정신을 먼저 개조해야만 다른 개혁이 가능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신개혁은 필연적으로 두가지 법칙 즉, 사람 性自然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反抗道德의 원리가 요구된다. 전자는 역사적 원리인데 대하여 장래의 결과를 고찰하면서 냉정한 理智로서 事理의 시비곡직을 비판하는 것이고, 후자는 기성의 윤리 혹은 政制 안에서 그 缺陷을 알아 가지고 감정과 의지로서 그 부자연에 대하여 반항함을 가리킨다. 결국 정신개혁이란 과거의 썩은 관습에서 벗어나 새 理想과 새 主義 아래에서 새 魂을 가지라는 말이다.

57) 「천도교경전」, 「의암 人與物開關說」

58) 이돈화, 「신인철학」, 천도교중앙총부, 1968, 138-139쪽

둘째, 민족개혁은 민족의 문화와 생활 정도를 향상 발전시키자는 것으로 민족주의는 인류주의와 세계일가주의의 이상주의에로 나아가는 최대의 준비적 기초가 된다. 즉 이상세계를 실현함에 있어서 민족을 단위로 하고 먼저 민족개혁을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이돈화는 당시 조선을 거인의 시체에 비유하고 이 시체에 혼을 환기한 것이 수운주의라 하였다. 유교의 폐단인 崇古思想, 崇文排武思想 등과 불교의 폐단인 출세간사상, 인륜도덕의 무시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動的 道德을 高揚하고 이를 통해서 民族改造 運動을 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사회개혁은 理想的 樂園世界 建設을 의미한다. 그가 말한 이상세계는 唯物的 경제문제 즉 衣食住의 鬭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創造鬭爭 즉 最高 人格性으로부터 宇宙生活을 實現하는 것이다. 이 점이 水雲主義의 理想이란 것이다.

수운이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제창생의 가치를 높이 들면서 모든 개혁을 부르짖었는데 보국은 민족개혁이고 안민은 사회개혁이며 포덕천하 광제창생은 지상천국을 의미한다고 보았다.<sup>59)</sup>

이돈화의 삼대개혁설은 수운의 핵심적 사상에 근원하여 의암의 인여물개혁설에서 또 한걸음 나아가 개혁의 원리를 정신 민족 사회의 세가지 개혁으로 구체화시킴으로써 신사회건설의 이념을 제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념적 방향성의 제시에만 그침으로써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 못한 한계를 지닌다. 이것은 그 연원이 되는 수운사상에 그 원인이 있으니, 수운의 후천개혁사상은 개혁을 무수히 주장하면서도 개혁의 구체적 내용이나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선지자적 예언자적 개혁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60)</sup>

## 2) 圓佛敎의 精神開闢

### (1) 少太山의 開敎와 未來觀

소태산(1891-1943)은 1916년 20여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심들이 하나 둘

59) 김홍철, 앞의 책, 351쪽

60) 신일교, 앞의 논문, 22쪽

해결되면서 마침내 대각을 이루었다고 한다. 대각을 이룬 소태산은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sup>61)</sup>이라고 하며,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 표어를 제창하고 최초의 법어를 발표하였다.<sup>62)</sup>

깨달음을 얻은 소태산을 포교할 기회를 기다리다가 1916년 7월경 증산계열의 한 교단에 입도하여 치성을 올렸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 중 8명을 선택하여 첫 교단조직을 구성하였다. 이 후 김제의 금산사, 부안의 변산, 이리 보광사 등을 두루 걸치고 난 뒤에 1924년 불법연구회라는 교명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sup>63)</sup>

소태산은 새로운 문명세계의 도래가 올 것임을 인지하였다. 우주 進降級의 자연적 원리에 따라 지금 우리가 처한 세상은 “묵은 세상의 끝이요 새 세상의 처음”<sup>64)</sup>이며,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바야흐로 동방에 밝은 해가 솟으려는 때”<sup>65)</sup>라 하여 일대 획기적 변화를 예상하였고 그 변화의 주체적 역할은 한국이 담당할 것임을 역설하였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큰 문명을 상징하는 뜻으로 ‘大明天地’ 혹은 ‘陽世界’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는 과학으로 인한 물질문명과 도덕으로 인한 정신문명이 크게 떨치는 세계가 도래되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양세계와 대명천지의 세계에서는 지도자와 人道正義의 요긴한 법만이 통용된다고 하였다. 과거시대는 어두운 음세계이고 돌아오는 세상은 밝은 양세계임을 말한다. 양세계와 음세계의 성격에 대해서, 음세계는 어두운 밤처럼 모든 사물을 분간하기 어렵고 국한된 범위만 알게 되며 또 밤이 되면 서로 문호를 닫고 잠을 자게 되는 것과 같이 음세계의 시대는 막히고 좁고 활동이 적고 치우침이 많다. 반면에 양세계는 대낮과 같아서 人知가 고루 진화되고 주의주장이 밝

61)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원불교전서』(『대종경』), 서품 1장, 원불교출판사, 1986(가로쓰기 4판)

62) 『대종경』 서품 4장

63) 송규, 『불법연구회 창건사』, 20-39쪽(원불교정화사 편, 『원불교교고총간』 5, 원불교출판사, 1973)

64) 『대종경』 전망품 19장

65) 『대종경』 전망품 21장

고 원만해지며 문호가 서로 열리게 되고 서로 만나 넘나들며 활동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문명세계가 된다.<sup>66)</sup> 획기적인 변화의 시기에 처한 우리 인류는 과거 선천의 불합리하고 어두웠던 구습을 탈피하고 정법에 의한 생활을 해가게 되면 세계의 중심국으로써 문명의 주도권을 쥐고 평화세계를 건설할 것임을 예시하고 있다.

물질로 인한 생활의 편리와 도덕으로 인한 정신개명이 된 훨씬 뒷날의 살기 좋은 낙원의 모습에 대하여 소태산은 자세히 밝히고 있다. 앞으로의 세상은 남에게 주지 못하여 근심하고 입신양명할 기회가 많아지며 도덕문명이 지배하며 물질문명은 도덕발달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sup>67)</sup> 다시 말해서 바른 道가 주장이 되는 대문명세계가 되래되며 이 세계가 후천세계이자 전무후무한 대도덕문명이 건설되리라는 것이 소태산이 가졌던 인류 미래에 대한 견해였다.<sup>68)</sup>

## (2) 物質開關과 精神開關

원불교에서 내다보는 대명천지, 양세계 즉 크게 문명화된 세상은 정신개벽이 수반된 이 후라야 가능하다고 본다. 인간 구조 자체가 정신과 물질(육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하나라도 결핍되어서도 인간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근세이후 인간들이 지나치게 물질을 추구하는 상당한 물질적 진보를 가져오기는 했으나 이에 수반된 물질을 부러써야 할 인간의 정신이 주인의 자리를 잃고 물질의 노예화가 되어가고 있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에 소태산은 개교표어에서 나타나듯이 정신개벽을 주창하였다.

개교동기에 보면,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피란고해가 없으리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피란고해의 一體生靈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고 하

66) 「원불교전서」(「정산종사법어」), 법어, 도운편 11장

67) 「대종경」전망품 20장

68) 김홍철, 앞의 책, 354-357쪽

였다.<sup>69)</sup>

지나치게 발달하는 과학일방도의 모습과 이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정신 문명의 침체를 개탄하고 하루 속히 정신문명을 개발하여 고해에서 해매는 중생을 한없는 낙원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원불교를 개교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소태산은 과학문명의 발달을 도외시한 것이 아니라 정신과 물질의 병행을 강조하였으니 정신과 육신의 雙全 즉 靈肉雙全 理事並行을 말한 것이다. 진정한 종교인의 자세는 의식주 생활 속에서 종교 본연의 정신을 현실해 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평화의 세계가 된다는 것이다.<sup>70)</sup>

그는 “안으로 정신생활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靈肉이 雙全하고 內外가 兼全하여 결함없는 세상이 되리라... 그러므로 내외문명이 병진되는 시대라야 비로소 결함 없는 평화안락한 세계가 될 것이니라”<sup>71)</sup>고 하였다. 이처럼 원불교에서는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이 주체가 되어 물질을 善用해 쓰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정신과 물질에 대한 개념은 어떠한가? 광의로 보면 천과 지이며, 협의로 보면 심과 신이다. 다시 말하면 넓은 의미로 물질이란 자연을 의미하며 정신이란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좁혀 말하면 물질이란 肉的인 생활 즉 육신을 위주로 하는 생활태도를 말하며, 정신이란 魂의 생활 즉 마음을 위주로 하는 생활태도를 뜻한다.<sup>72)</sup>

소태산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分別性和 住着心이 없는 경지”<sup>73)</sup>라 하여 한 마음 나기 이전의 淸淨無爲한 本然의 心性을 精神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원불교에서의 정신이란 바로 根本心을 의미한다. 이 根本에 대한 回復이 다름 아닌 精神開關이다. 이 정신개혁의 방법이 원불교 교리의 중요 내용이 되며, 특히 修行門의 三學에서 精神修養이 바로 정신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수양이란 이러한 정신을 양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69) 「원불교전서」(「정전」), 총서편, 개교동기

70) 김홍철, 앞의 책, 358쪽

71) 「대종경」 교의품, 31장

72) 류병덕, 「원불교와 한국사회」, 시인사, 1988, 31쪽

73) 「정전」 교의편, 삼학, 정신수양

수양은 욕심을 제거하고 정신을 얻어 自主力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sup>74)</sup> 오랜 정신수양 끝에 자주력을 얻으면 경계에 물들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청정함은 허공과 같고 不動함은 태산과 같아지는 듯 큰 인격을 이루게 된다. 이 경지가 바로 정신개혁을 이룬 경지로 보고 있다.<sup>75)</sup>

그는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用心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망경계에 항상 自利利他로 모든것을 善用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따라서 그 조정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한 가지 참 문명세계를 건설하는 데에 노력하라”<sup>76)</sup>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그는 정신과 물질의 조화, 심신의 조화와 일치를 내세웠으며 서양의 과학문명이 나 동양의 도덕문명이 상호배치되거나 상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소태산은 수운, 일부, 증산으로 이어지는 한국 신종교의 후천개혁사상을 계승하고 있다. 즉 동양의 전통적인 우주론에 입각한 신종교의 후천개혁사상을 철저히 수용하고 있으며, 특히 증산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sup>77)</sup> 또한 후천개혁사상의 맥락에 위치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 기초하여 이상사회를 실현시키고자 하였다.<sup>78)</sup>

이상에서 소태산은 매우 현실적인 종교가로서, 선진들의 영향을 받아 후천개혁사상을 계승하면서도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상황 속에서 현실에 근거를 두고 현실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후천개혁의 이상을 사회적으로 적용시켰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민족의 불운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항거에 참여하지도 않고 또한, 후천개혁을 대망하는 민중들에게 영성적 희망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교단의 유지를 위해 일제 관헌과의 직접적인 마찰을 회피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사회변혁에 적응할 수 있는 정신생활과 물질생활의 조화를 모색하였다.<sup>79)</sup>

74) 上同

75) 김홍철, 앞의 책, 359-360쪽

76) 「대종경」 교의품, 30장

77) 김탁, 「한국종교사에서의 증산교와 원불교의 만남」, 「한국근대사에서 본 원불교」, 도서출판 원화, 1991, 191-235쪽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78) 박맹수, 「원불교 초기교사 신연구」, 「인류문명과 원불교사상」, 원불교출판부, 1991, 75쪽

79) 김진수, 「한국민족종교의 후천개혁사상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4, 70쪽



### 3. 大巡眞理의 精神開闢

#### 1) 心·精神

대순진리의 정신개벽을 알아보기 전에 心, 心靈, 精神 등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순에서는 심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心靈과 精魂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므로 典經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음이란 것은 귀신의 추기요 문호요 도로이다. 추기를 열고 닫으며 문호를 들락날락하며 도로를 오고 가는 신에는 혹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다. 선한 것은 스승으로 삼고 악한 것은 고쳐 쓰니 내 마음의 추기와 문호와 도로는 천지보다 크다.<sup>80)</sup>

이 글에서 심은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는 중추기관임을 말하고 있다. 더욱 인간의 심은 초월적 신과 交通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명된다. 문을 열고 닫으며 오고 가는 존재는 바로 종교적 대상으로서의 신이 되며, 이는 선과 악이 혼재하는 다양한 세계를 이루고 교류를 통해 가치를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심에 대한 주체적 자각으로 善神과 선택적인 교류를 통해 가치를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존재의의는 이와 같이 신의 가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으며, 나아가 신과 인간의 조화로운 합일을 이룬 경지에서 그 가치가 더욱 빛나게 됨을 알 수 있다.

신과 인간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더욱 神·人이 만나는 공간이자 매개체가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마음으로 들어오는 善神과 惡神을 구별할 때 인간 주체가 드러난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단지 텅 비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닫고 어떠한 신을 출입하게 하는 판별하는 의지와 힘을 갖추고 있어 곧 智慧와 勇力의 작용으로 들어 난다. 인간이 자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천지의 중앙이 심이고 그 몸이 의지할 곳이 마음이라고 하며,<sup>81)</sup> 천지가 從容하거나 紛亂한 일은 모두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sup>82)</sup>고 말하는 것이다.

80) 「典經」행록 3장 44절

81) 「典經」교운 1장 66절

82) 「典經」교법 3장 29절

그렇다면 사람 마음의 지각작용이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사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마음이나 정신 모두가 물질로 형상화될 수 없기 때문에 현대의 과학으로도 그것을 다 알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몇가지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 볼 수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心이란 말과 心靈이란 말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심령이란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교의 경전인 心經에서는 마음을 虛靈, 知覺, 神明으로 나누고 있다.<sup>83)</sup> 즉 마음은 허령하나 지각하는 힘이 있고 이곳은 아울러 신명의 집이라고 묘사되고 있다. 마음이 허령하게 작용하는 것이나 다른 사물과는 다르게 인간만이 靈性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어떤 神靈한 힘이 內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心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은 마음의 津液 같은 곳으로 만사를 주재하고 용사하는 힘을 갖고 있으며 諸神들이 출입할 토대라고 하겠다. 상제께서 현무경에 '心靈神臺'<sup>84)</sup> 하였고, 도주께서 포유문에, 인간에게는 한량없는 지극한 보배가 있으니 바로 心靈이라고 하였다. 이 심령과 통한 즉 귀신과 수작할 수 있고 만물과 더불어 질서를 함께 할 수 있으니 이것을 구하라고 일깨워주셨다.<sup>85)</sup>

그런데 이 心靈은 靈魂, 精魂, 精神 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면서 작용을 한다. 전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사람은 혼과 백이 있어서 사후에 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사대 후에 영이나 선이 되며, 백은 땅으로 돌아가 귀가 된다고 하였다.<sup>86)</sup> 인간 정신의 구성하는 요소가 바로 혼과 백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정혼 혹 혼은 하늘에서 품부된 것으로 죽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더욱 도를 닦는 사람의 정혼은 굳게 멩치기 때문에 죽어도 흩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른다고 상제께서 밝혀주었다.<sup>87)</sup>

일반적으로 심, 심령, 정신 등을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상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구성요소와 구조를 갖고 유기적 연관 하에 작용한다고 하겠다. 정리하면, 인간의 몸을 주재하는 것은 마음이요 마음에 주재하는 힘을 심령이며,

83) 「心經」 「心學圖」

84) 「典經」 교운 1장 66절 玄武經 18면

85) 「典經」 교운 2장 41절 布喻文

86) 「典經」 교법 1장 50절

87) 「典經」 교법 2장 22절

이 심령은 정혼, 정신의 토대가 되면서 상호 소통과 동시 작용을 하는 인간의 지각의 원천이면 신들과 교통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정신이 곧 심령이라 해도 크게 어긋난 말은 아닌 것이며, 특히 대순에서는 신이 마음을 통해 출입 왕래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주어 이러한 의미를 뒤받침하고 있다.

## 2) 大巡眞理의 開闢觀

개벽장으로 강세하신 상제께서는 삼계를 개벽하는 공사를 집행하였으니 앞서 언급한 바로 천지공사이다. 위에 살펴본 천도교와 원불교와는 판이하게 개벽의 주재자로서 자임하였고 그에 걸 맞는 구체적인 작업을 시행한 것이 가장 독특한 점이다.

19세기 사회는 한국 신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대로 진멸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위기는 마침내 최고신 상제의 강제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종교적 권위에 입각한 신의 세계로부터의 구원 의지에 의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전경에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벽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sup>88)</sup>라고 한 것처럼 상제의 ‘광구천하’라는 개벽의 목적을 나타낸다. 이를 위한 개벽공사가 옛날에도 없으며 지금도 없고 남의 것도 계승한 것도 아닌 오직 스스로 ‘지어 만든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며,<sup>89)</sup> 기존의 판 안에 있는 법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판 밖에서 새로운 법’으로 일할 것을 말하였다.<sup>90)</sup> 이것은 상제의 역사가 독창적이고 유일한 것임을 밝혀주는 대목이다.

‘개벽장’, ‘지어 만드는 것’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여타의 신종교에서 주장하는 개벽과는 다르다. 그것은 천지개벽에서 천지가 새로 창조되는 의미나 역의 교체에 따른 우주 운회의 변화와도 다른 것이다. 개벽의 주재자가 자신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권능과 의지로써 혼란한 세상을 바로 잡고 새롭게 뜯어고치며, 자연의 질서를 조정하여 새로운 이상세계를 건설하

88) 『典經』 권지 1장 11절

89) 『典經』 공사 1장 2절

90) 『典經』 행록 2장 14절

는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평가된다.

개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오.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은 구하는 자는 힘쓸 지어다.<sup>91)</sup>

이 글에서 개벽은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것은 성숙과 완성을 뜻한다. 성장염장의 자연적 변화 과정에서 성숙되고 갈무리되는 시기에 맞게 모든 사물이 성공하는 것이 개벽이라는 것이고, 그 주재자가 바로 자신임을 또한 언급하고 있다.<sup>92)</sup> 개벽은 가을바람으로 상징화하여 그 의미를 더욱 밝혀주고 있고, 이에 따라 참된 자는 창성하여 그 뜻을 이루고 거짓된 자는 멸망하는 양극적인 결과를 암시하고 있다.

결국 개벽을 어떠한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이냐는 지나온 성장과정에서 스스로를 얼마나 알차게 가꾸어 나갔느냐는 점에 달려있다. 여기서 자신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자연의 법칙이 개벽관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93)</sup> 그리고 말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하는 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 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sup>94)</sup>고 전하였다. 이로 볼 때 대순진리의 세계관 혹은 미래관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사후가 아닌 현실에서의 이상세계를 말하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대순진리의 개벽은 인류와 신명계, 모든 천지만물을 살리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담고 있다. 또한 성숙과 완성이 본질적인 의미이지만 가을의 숙살기운이 갖는 면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인의를 베풀고 참되게 살아

91) 「典經」 예시 30절

92) 「典經」 공사 1장 1절

93) 김탁, 「중산 강일순의 공사사상」, 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5, 94쪽

94) 「典經」 예시 17절

야 하는 도덕성도 요청된다. 특히 천지공정 곧 천지공사의 주체로서 참여가 또 다른 특징이다. 그러므로 신앙심과 도덕성 그리고 공사실현의 주체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인류구제의 대역사인 개혁공사와 그 이상으로서의 후천세계는 그 기획된 구상에 따라 진행되겠지만, 이것을 실제로 완성시키는 문제는 바로 인간 자신의 일로 남겨졌다. 그러므로 공사의 주체가 되는 인간이 그에 맞게 변화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인간의 수도를 통한 근본적인 변혁 즉 정신개혁의 문제가 당면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다.

### 3) 大巡眞理의 精神開關

근세 이후 인류는 과학문명을 발달시켜 물질적 편의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폐해로 인한 위기를 상제께서는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sup>95)</sup>라고 말하였다. 서양의 文運은 천국의 모형을 본 딴 것이며, 이를 인세에 베풀게 된 이유는 문명이기를 이용하여 창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다.<sup>96)</sup> 이는 물질이라는 사회의 토대를 구축하여 인간 삶의 질적인 풍요를 마련하려는 利用厚生의 측면이 이고 또 그것에만 매달리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려는 의도였다. 그래야만 인간 본연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고 나아가 인간을 개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질문명은 인간성 상실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런 이면에는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여 인간의 도덕적 타락과 정신문화의 경시 등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이 물질에 지배되고 작금의 상황에서는 더욱 정신의 개혁이 필요하겠다.

개혁을 위한 정지작업이 천지공사이인데 이 공사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천계와 지계공사는 결국 인계공사로 그 내용이 모아지고 있다. 하늘과 땅을 개조하는 작업은 천지의 상도를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인세에

95) 『典經』 교운 1장 9절

96) 『典經』 공사 1장 35절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그 속에 살고 있는 인류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간을 둘러싼 제반환경을 바로 잡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남은 것은 인간문제로 귀착된다고 하겠다. 즉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 후천세계에 맞게 자신을 개혁시키는 것이 최종적인 문제이니 인간의 수도가 절실히 요청된다. 이러한 점에서 상제의 의해 기획된 대역사의 작업은 최종적으로 이루는 인간의 주체적인 각성과 노력이 요구된다. 바로 이와 더불어 정신개혁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인간의 개혁은 정신과 육신의 개혁으로 나눌 수 있고 이중 정신의 개혁이 주가 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대순진리에서는 정신의 개혁 못지 않게 육체를 중시하고 있다.

먼저 인간의 개혁, 개조를 위한 공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경에 다음의 기록들이 보인다.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샷 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또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배속에 출입케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고니라.<sup>97)</sup>

위 글은 인계공사 중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가슴과 배속에 드나들게 하여 고쳐 쓰는 작업을 한다는 언표이다. 앞서 사람의 마음은 제신들이 출입 왕래하는 기관으로서 선신과 악신이 있고 선신은 스승으로 삼되 악신은 고쳐 쓴다고 하였다. 이 말은 절대적인 선과 악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악조차도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상제의 천지공사가 집행된 이후에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 상제께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들 각자의 가슴속으로 드나들게 함이 결국 인간 자신을 고쳐쓰려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신명중에는 선 악신들이 있겠고 악신을 분별하고 고쳐쓰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마음으로 왕래하는 제신을 판별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은 결국 인간 그 중에서도 심령이자 정신의 작용처에서 주관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인간을 개혁하는 것은 바로 정신을 개혁함이 가장 중요할 수

97) 「典經」 교법 3장 4절

밖에 없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거침이 없고 한이 없어서 본심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을 간파한 상제께서는 그래서 먼저 모든 일을 풀어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겼다.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통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sup>98)</sup>

천지공사의 이념은 해원상생이라 할 수 있다. 해원상생은 그 동안 인류와 신명계에 맺히고 쌓인 모든 원한을 풀어버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큰 병에 걸리는데 이것이 척이 된다. 척은 또 다른 척을 낳고 이로 인해 인류가 파멸하게 되는 원인이었다. 그래서 단주의 해원공사를 시작으로 하여 인간과 신명들의 해원공사를 집행하여 인류의 영원한 평화가 이룩될 수 있도록 실마리를 풀었던 것이다.<sup>99)</sup>

그러나 그 전에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또 다른 척을 막기 위해서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겨 하고픈 데로 하는 해원을 시키게 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할 문제가 남는다. 그것은 자칫 인간의 자만과 방종 무질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난법이 횡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난법을 풀어놓고 진법으로써 다시 바로 잡고, 신명들이 세세미미하게 수찰하여 사람에게 임하여 먹줄을 겨누게 하고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즉 해원은 결코 욕망의 발산 내지는 해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법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 작업일 수 있으니, 해원에는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의 해원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난법의 시대에 사곡한 행위를 금하고 진실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겠다.

98) 『典經』 교법 3장 24절

99) 『典經』 공사 3장 4절

이처럼 인간의 개혁시키기 위한 상제의 공사가 마련되었다면 결국 남는 문제는 바로 인간 자신의 마음과 정신이다. 즉 인간의 주체적 자각과 건실한 노력인 수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순진리의 정신개혁은 상제께서 마련해 놓은 타력적인 정지작업과 인간의 주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두 부분에 걸쳐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자력적이고 주체적인 행위인 수도는 바로 무자기라고 하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진실무망한 인간 본연의 참 모습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각자가 자신을 속이지 않고 나아가 남도 속이지 않아야 참되고 성실한 인간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그러할 때에 사회는 신뢰를 되찾고 인류의 평화가 이룩된다.

그러나 무자기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개혁하는 즉, 후천의 새로운 인간상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당연히 동반된다. 정신개혁이란 결국 인간 본심으로 돌아가는 데로부터 진실된 모습을 찾는 것이라면, 한발 더 나아가 신세계에 부흥하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함을 최종의 목적으로 한다. 정신개혁이란 마음의 개혁, 즉 사고 사유의 탈바꿈이고, 나아가 항상 왕래하는 제신 중에서 악신을 분별하여 고쳐 삼고 善神과의 합일 내지는 조화를 이루게 하는 의지적 노력을 의미한다. 마음은 일신을 주재하고 만기를 통솔 이용하는 중추적 기관이므로 심에 대한 주체적으로 자각하고 신과의 교류와 상통하므로 해서 인간의 가치가 극대화되며 새로운 인간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대순진리는 인간의 마음과 정신뿐 만 아니라 육체의 변혁을 말하고 있다. 육신의 변화는 다름 아닌 인간의 체질을 고치는 것부터 인간 몸을 완전하게 만드는 즉 신선 혹은 도통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뒤바꾸어 놓는 것이다. 그래서 대순진리의 또다른 목적 중 하나가 인간개조이자 지상신선실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기초적인 출발이 수도 공부법방으로 집약된다고 하겠다.

要覽에는 “수도는 심신을 침잠추밀하여 대월상제의 영시의 정신을 단전에 연마하여 영통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하는 일념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성으로 소정의 주문을 봉송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 수도는 공부와 수련과 기도로 구분한다고 설명한다.<sup>100)</sup> 물론 주문을 외는 수련이 수도의



전체는 아닐 것이다. 앞서 수도를 일심과 포덕 나아가 포덕 교화 수도라는 사업으로 정립하여 말한 것처럼, 수도의 범위는 광범위한 것이다. 다만 공부 수련 기도라고 하는 일상적인 기본적 실천으로부터 시작함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대순진리의 목적인 무자기나 정신개벽은 이러한 것들을 일상으로부터 실행하고 생활화하는데서 시작하여 인간의 주체적 각성과 노력으로 포덕천하 구제창생 등의 사업을 대외적인 것으로 확대시킬 때에 비로소 인간의 성숙과 완성, 인류의 평화와 지상선경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에 많은 잘못과 죄악을 범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에 머무르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상제께서 탕자의 일을 비유한 것처럼 과거에 방탕하여 허송 세월을 보냈다하더라도 반성하고 改心한 예가 좋은 본보기일 것이다. 또한 도주께서 포유문에 언급한 것처럼 인간에게 가장 진귀한 보배인 심령을 찾아 헤매고 다닌 사람들에게는 이 심령을 찾을 수 있게끔 大道가 있음을 밝혀주었으니 자신의 심기를 세우고 의리를 구하며 심령을 상제의 임의에 맡기라는 대목을 주의 깊게 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상제에 대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실된 인간으로 태어나고 정신과 육체의 변혁을 통해 새로운 후천의 인간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무자기는 대순진리의 목적의 출발점으로서 훈회와 수칙이라는 규범으로 공식적으로 자리 잡혀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실천적 과제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정신개벽은 信心을 통해 인간의 정신이 종교적 도덕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즉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며 이는 대순진리에서 제시하는 미래의 인간상인 것이다.

## V. 結 論

19세기 한국의 신종교들은 파격적인 세계관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개벽이란 세계의 근본적인 변혁을 통해서 후천세상이 열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관은 모두 사후가 아닌 현실에서 이룩됨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서 정신

개혁을 주창하였다. 이 중에서 대순진리는 개혁에 대한 이념, 방법, 목적 그리고 모델까지 말하는 가장 정교한 미래관을 보여주고 있다. 대순진리의 목적은 도통진경이고 그 세부 조목이 무자기 정신개혁 등으로 공식화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구천상제의 강세와 그에 따른 천지공사 즉 개혁공사로부터 연유하며, 인간의 자발적인 수도가 뒤받침 되어야 목적을 완수할 수 있다.

무자기는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니 성실하고 진실함을 말한다. 이는 양심에 의해 인식되어진 내용을 욕심으로 인해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실행에 옮겨 인간의 정직하고 진실한 본연의 모습을 찾게 된다. 그래야만 악을 물리치고 선을 행하여 천성을 회복할 수 있고 만복이라는 대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마음을 속임은 신을 속이고 나아가 하늘을 속이는 것이므로 극히 경계하는 것이다. 마음은 신과 인간의 교류의 장소이니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실무망하면 신인상통, 신인조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즉 무자기는 대순진리 목적과 미래의 인간상에 이르는 초석이 된다. 이는 곧 정신개혁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신개혁은 인간의 마음, 정신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 바탕은 상제에 대한 신앙심이고 수도를 통한 도덕성의 회복으로 마음과 사교를 변혁시키고 후천의 세계에 맞는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정신개혁은 인간개혁이요 세계개혁의 출발점이다. 인간의 개혁은 몸과 마음, 정신가 육체의 탈바꿈이니 인간의 개조된 모습이다.

무자기는 개인 수도의 밑바탕이 되고 정신개혁으로 이어지게 되며 타인도 속이지 않으므로 해서 신뢰를 형성하고 나아가 인류평화를 만들어 내니 이는 곧 후천의 모습이다. 대순진리의 목적은 고원한데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다듬어 나가는데서 시작된다. 지극히 평범하지만 반드시 실천할 조목이면서 목적이 바로 무자기 정신개혁이다.

【참고문헌】

『典經』

『대순지침』 『대순진리회요람』

『大學』 『心經』 『性理大全』

『朱子語類』 『朱子文集』 『二程全書』

『천도교경전』 『원불교전서』

기시모토희데오, 박인재 옮김, 『종교학』, 김영사, 1994.

최동희 이경원, 『대순진리의 신앙과 목적』, 대순사상학술원, 2000.

장대년, 김백희 옮김, 『중국철학대강』, 까치, 1998.

김수중 외, 『인간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9.

한국사상연구회, 『최수운 연구』, 보성사, 1978.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천도교중앙총리원, 1933.

이돈화, 『신인철학』, 천도교중앙총부, 1968.

김흥철, 『원불교사상논고』,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0.

원불교정화사편, 『원불교교고총간』 5, 원불교출판사, 1973.

류병덕, 『원불교와 한국사회』, 시인사, 1988.

박맹수 외, 『인류문명과 원불교사상』, 원불교출판부, 1991.

이경원, 『한국 근대 천사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8.

김태영, 『퇴·을 성경사상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1988.

김탁, 『증산 강일순의 공사사상』, 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5.

신일교, 『후천개벽사상의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81.

김진수, 『한국민족종교의 후천개벽사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4.

김승동 편저, 『도교사상사전』, 부산대학교출판부, 1996.

『동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1983.

『유교대사전』, 박영사, 1990.